

# 부산광역시의 토요 프로그램 운영실태의 탐색

박인규 · 차철표<sup>†</sup> · 박창언

(<sup>†</sup> 부경대학교 · 부산대학교)

## Investigation of Current Status of Saturday Program Operation in Busan Metropolitan City

In-Kyu PARK · Cheol-Pyo CHA<sup>†</sup> · Chang-Un PARK

(<sup>†</sup> Pukyong National University · Pusan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Based on 'Backpack-free day' and 'Unsupervised studying day' in the early 1980s, 10% of all schools in 2004 had at least 1 day of five-day classes a month as at least 2 days were enforced in 2006, and most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had widely enforced the five-day class since 2012 March. The five-day class system expands the stage of studying from school to families and local societies to build an educational community related to school-family-local societies to provide various activities such as culture, art, sports, social, nature experiences on holidays to have the goal to foster creative future talents with proper personality understanding and considering others.

In Busan, the five-day week class of Saturday program is being operated in various methods by national · local government and public organizations. The Saturday program of local societies registered in the Saturday school of the information sharing networks are 2823 in total for the past 6 years which are being operated by national · local government and public organizations. However, participation of students in the Saturday program is around 20% in 2012 March when Saturday holiday system was widely conducted. For this, problems in the Saturday programs that are currently being enforced are to be closely analyzed and participation expansion plans are to be made.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and investigates operation forms of Saturday programs conducted in Busan to propose an improvement plan to fulfill goals of Saturday programs and boost participation of students.

*Key words : Unsupervised studying day, The five-day week class, Saturday program*

### I. 서론

1980년대 초기의 '책가방 없는 날', '자율 학습의 날'을 필두로 하여 2004년에 전체 학교의 10%가 주5일제 수업을 월 1회 이상 시행하였으며, 2006년 이후에는 월 2회 이상 실시해 오다가

2012년 3월부터는 전국 대부분의 초·중등학교가 주5일제 수업의 전면적이 시행에 들어갔다. 주5일 수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여가 문화 정립, 그리고 올바른 인간성을 갖춘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패러다임 전환에 있다. 주5

<sup>†</sup> Corresponding author : 051-629-7392, cheolppyo@hanmail.net

일 수업제는 학습의 장을 학교에서 가정과 지역 사회로 확대하고 학교-가정-지역사회 연계의 교육공동체를 구축하여, 학교교육에서 실시하기 어려운 문화, 예술, 스포츠 활동을 비롯한 사회·자연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의 기회를 휴일을 통해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배우고 생각하는 힘,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바른 품성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주5일 수업제는 아이들이 여유를 가지고 각자의 적성과 소질을 살리면서 자기실현을 할 수 있도록 학교의 수업일을 주당 6일에서 5일로 축소하여 실시하는 학교 운영을 말하며, 1주일에 5일만 학교에 등교하여 정규교과 수업을 실시하고, 1일은 학생들의 경험의 창출, 학교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사회, 문화생활 등으로 확대하여 자기 스스로의 계획에 따라 생활체험, 사회체험, 자연체험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정부 차원의 방과후 학교 우수 강사 육성·활용,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을 추진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은 청소년수련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지역사회 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토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는 자체의 방과후 학교를 운용하거나 또는 지역사회의 토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부산에서는 주5일 수업제에 따른 토요 프로그램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관단체가 다양한 내용을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토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공유 네트워크의 하나인 토요배움터에 등록된 토요 프로그램은 최근 6년간 2823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 일선학교 및 민간단체가 각 기관의 특성에 맞추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토요휴무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된 2012년 3월에 학생들의 토요 프로그램 참여율이 20% 내외를 보이

고 있다. 이것은 현재 시행 중인 토요프로그램이 내재하고 있는 문제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산에서 실시되고 있는 토요프로그램의 운영형태 등을 조사·분석하여 학생들의 참여율 제고와 토요프로그램 운영의 목적달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주 5일 수업제의 개관

#### 가. 개념과 목적

주5일 수업제란 일주일에 5일만 학교에 등교하여 정규교과 수업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5일 수업제는 학교에서 교과활동을 하고 1일은 가정과 사회에서 다양한 체험으로 학교 학습의 심화·보충하는 학교 운영방법이다. 주5일 수업제는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한 활동임과 동시에 사회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며, 문화를 전승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창조함으로써 사회의 이상과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주5일 수업제는 단순히 수업일수가 6일에서 5일로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의 개념 변화와 그 체제 전체의 구조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주 5일 수업제는 학생들에게 주체적 학습능력과 자질을 길러주며, 더 나아가 가족과의 유대를 증진하며, 지역사회 체험을 통하여 바람직한 인간상을 형성시켜주는 효율적인 학교 운영방안이라 할 수 있고, 가정과 지역사회의 여러 놀이, 여가활동, 자연체험, 사회체험, 생활체험 등을 통하여 학교활동에서 배운 내용을 보다 심화시켜 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주5일 수업제의 전면 실시는 지식습득 위주의 학력관에서 문제해결력, 창의성,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강조하는 학력관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주 5일 수업제는 학생들에게는 학습 부담을 완화하고, 교사에게는

과중한 수업부담에서 벗어나 교재연구와 자율연찬에 투입하게 하여 우리 교육에 활력을 가져다 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또 학부모에게는 가족단위 여가문화가 확산되어 가족간의 유대를 증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11).

반면에, 제7차 교육과정의 주6일 수업, 연간 220일을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는 체제를 주5일제 수업에 맞추기 위해 전반적으로 개편할 경우에 수업일수를 확보하기 위한 방학기간의 단축, 평일수업 끼워 넣기 등 불가피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체험학습, 놀이시설, 문화시설 등 사회의 교육적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고 학부모의 주5일제 수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학생들에 대한 지도 공백을 초래하거나 또는 학원, 과외 등 사교육비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주5일제를 실시하지 않는 직장에 근무하는 직장맞벌이 부부 또는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학생들만 가정에 남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며, 가정생활지도의 공백으로 인한 비행청소년의 증가, 학교 폭력 증가 등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나. 추진현황

2011년 6월에 정부는 2012학년도부터 주5일 수업제 전면자율도입 계획을 발표하고, 주5일 수업제 시범운영학교를 2011년 7월부터 2012년 2월까지 632개 학교를 선정하여 운영하며, 주5일 수업제 시행 중앙 추진단을 2011년 6월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그리고 2011년 10월에 주5일 수업제 관련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sup>1)</sup>하여 공포하고, 2012년 2월에 주5일 수업제 시행 대책 점검 및 국무회의 보고를 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이에 따라, 2012년 현재, 전국 대부분(99.6%)의 초중고교에서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주5일 수업제를 모든 학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중학교의 경우는 3,158(99.8%)개 학교가 주5일 수업제를 전면실시하며, 6(0.2%)개 학교가 주5일 수업제를 월 2회 실시하고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2,263(98.6%)개 학교가 주5일 수업제를 전면실시하며, 33(1.4%)개 학교가 주5일 수업제를 월 2회 실시하고 있으며, 특수학교는 148(98.7%)개 학교가 주5일 수업제를 전면실시하며, 2(1.3%)개 학교가 주5일 수업제를 월 2회 실시하고 있다. 전국 단위 모집학교, 기숙형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등학교 등은 부분적으로 실시하거나 실시를 하지 않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표 1> 주5일 수업제 자율시행 현황  
(2012년 1월 현재)

구분	전면실시 190일 이상	월 2회 실시 205일 이상	미실시 220일 이상	합계
초등학교	5,882 (100%)	-	-	5,882
중학교	3,158 (99.8%)	6(0.2%)	1	3,165
고등학교	2,263 (98.6%)	33(1.4%)	-	2,296
특수학교	148 (98.7%)	2(1.3%)	-	150
합계	11,451 (99.6%)	41(0.4%)	1	11,493

2. 토요 프로그램 운영지침

가. 기본원칙

2011년 6월 14일 정부는 2012학년도부터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자율 도입한다고 발표하였다. 주5일수업제는 2005년 이후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월1회로 시작하여 2006년 2회로 확대 실시되어 왔다. 주5일수업제 전면 자율 시행 정책에 따라 2012년부터 전면 실시를 희망하는 학교에서는 이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 매뉴얼은 일선 학교가 주5일수업제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을 중심으로 이를 안내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해 주기 위해 초등학

1) 수업일수 주5일 기준으로 3단계(190일, 205일, 220일) 구분하여 자율선택

교육, 중학교교육, 고등학교교육으로 나누어 2011년 12월 15일에 제작하여 일선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보급하였다.

운영매뉴얼의 전체 구성은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5일수업제의 도입 목적, 도입 절차와 관련법, 외국의 사례,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토요일 프로그램 사례 등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입 절차에 대한 안내와 함께, 학생들의 토요일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조사, 안내문 등 각각 예시문을 포함하였다. 또한 토요일 프로그램 기획시 유형별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학교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다른 학교나 지역사회와 연계된 프로그램, 학교 밖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 3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각각에 해당하는 사례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주5일수업제에 대한 일선 학교와 교사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한 Q&A를 부록에 넣어 새로운 학교 운영에 대해 쉽고 간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과정 편성의 경우, 현재 205일 안팎의 수업일수를 190~195일까지 줄일 것을 권장하고 있다. 수업일수는 줄지만, 수업시수는 줄지 않기 때문에, 주중 수업부담을 최소화하려면 학교장 재량 휴업일을 줄이고 여름과 겨울방학기간을 5~6일 줄이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나. 토요일 프로그램 운영과 학교의 역할

학교는 주5일수업제로 인해 생긴 줄어든 수업일과 늘어난 휴업일에 대해 모두 책임있게 대응해야 한다는 분명한 과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먼저 줄어든 수업일에 대해서는 학교 특성과 여건에 맞게 자주적인 편성을 하여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교과만이 아니라 학교 행사 등 교과외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학교 교육 전체 속에서 각각의 교육적 의미를 재검토하여 교육적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정련화한다. 불필요한 준비과정을 축소하고, 방과후, 방학의 활용방법을 강구하며, 견학, 소풍 등의 기획을 학생 주도형으로

하면서 교과 학습과의 연계를 도모한다.

또한, 늘어난 휴일에 대해서는 우선 '누구도' 방치되지 않는 휴일이 되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누구나'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휴일을 보낼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하고 싶은 것은 휴식과 여유로운 휴일보내기, 가족, 친지, 친구, 지역민과의 교류, 독서, 등산 등 다양한 취미, 문화활동, 스포츠, 예체능 활동, 다양한 체험활동, 부족한 공부 보완 등이다.

토요일 프로그램은 국가기관이나 학교 뿐만 아니라, 지역 내의 전통문화시설, 자연체험장, 지역주민센터, 도서관 등의 교육자원을 활용한 민간단체 차원에서 운영되는 것이 많다. 학교는 다양한 토요일프로그램의 홍보처로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토요일 휴일을 비롯한 주말에 어린이와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지역의 자연생태축제, 생애학습페스티벌 안내, 어린이 페스티벌을 비롯하여, 자유롭게 스스로 놀게 하는 근린공원에서의 놀이 안내 등)를 담당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국가 교육과정의 운영원칙과 주5일 수업제에 따른 국가 정책

가. 국가 교육과정의 운영원칙

현재 우리나라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의 기본 방향을 정하고 있다. 학교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지방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거, 지역의 특수성, 학교의 실정, 학생의 실태, 교원, 학부모의 요구와 필요를 분석·검토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학교 교육과정에는 학교의 교육 목표, 경영 철학, 전통, 특성 등이 치밀하게 반영되어야 하고, 학교 교육의 중점, 교육의 기본 방향, 편제와 시간 배당, 교과, 특별 활동, 재량 활동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학교가 편성·운영한 학교 교육과정의 적합성, 효과성을 매년 자체 평가하여 문제점과 개선점을 추출하고 학생들의 교육목표 달성도를 조사하여 다음 교육과정에 반영한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 평가는 연 2회(학기말, 학년말) 실시하여 수정·보완하고 다음 학년도의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A).

나.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에 따른 국가정책

2012학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주5일수업제는 지역별·학교별로 시행 여건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교육감의 승인 하에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월2회 주5일수업제 실시(2006년)에 따라 205일 내외로 운영되던 현행 수업일수가 2012년 이후에는 '190일 이상'으로 조정된다. 190일에는 교육과정 기준 수업일수인 170일(34주×주5일, 교육과정 기준 수업일수)과 20일의 학교장 재량 수업일이 포함된다. 또한 학교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업일수를 16일에서 20일로 확대함으로써 주5일 수업으로 인해 우려되는 학습의 효율성 저하 문제 및 학습부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하였다. 수업일수와 달리 총 수업시수는 현행 교육과정에 제시된 수업시수가 그대로 유지된다(2011년부터 시행중인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이미 주5일수업제 시행을 전제로 수업시수를 결정하여 고시한 것임).

주5일수업제의 시행에 따라 토요일의 돌봄 및 교육복지 프로그램의 확대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및 맞벌이부부 자녀에 대한 대책이 대폭 강화될 것이며, 토요 돌봄교실을 수요가 있는 모든 초등학교와 특수학교까지 확대 운영하도록 하고, 주중에만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각종 부처의 프로그램이 주말까지 확대 운영된다.

또한 지역내 인프라를 활용하여 학생의 문화·체육·예술 체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예컨대 「토요 Sports Day」의 확대운영이나 박물관, 미술관 등의 문화기반시설과 청소년 수련시설 등,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문화·체육·예술 체험 프로그램이 적극 지원되고 시설들에서의 토요 프로그램이 강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사교육수요 흡수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봉사활동 프로그램도 지원할 예정이다. 교과 심화·보충 학습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토요 방과후학교 교과프로그램 운영도 활성화할 계획이며, 가정의 자녀교육 기능 강화를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가족 봉사단' 운영, '학부모 생활지도 서포터단' 운영 등을 통해서 가족 단위, 동아리 단위의 봉사활동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III. 연구 방법

#### 1. 조사 대상

본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와 링크되어 있는 주5일 수업제 토요배움터<sup>2)</sup>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부산시 토요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였다. 토요 배움터 홈페이지는 토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토요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탑재할 뿐만 아니라, 주5일 수업제와 관련한 토요 프로그램을 홍보해야 할 일선 교사와 토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토요 프로그램과 관련한 정보를 얻는 곳이다.

토요 배움터의 홈페이지 토요스쿨 사이트에는 2006년부터 토요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알림마당 사이트에서는 지방교육지원청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토요 프로그램(2011학년도 하반기와 2012학년도 상반기 직속기관 및 지자체 토요스쿨 프로그램 목록) 현황을 조사하여 토요 프로그램 운영계획 등을 탑재하고 있다. 2012년 4월 현재 토요 배움터 토요스쿨과 알림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토요 프로그램 중 중복하는 토요 프로그램

2) [http://5days.go.kr/02\\_saturday/saturday01.php](http://5days.go.kr/02_saturday/saturday01.php)

램을 제외한 2,823개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 2. 조사 도구

토요 배움터 토요 프로그램 사이트에는 프로그램의 종류, 프로그램명, 기관명, 주소, 운영기간, 시간 등에 관한 정보가 탑재되어 있다. 토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프로그램의 종류를 내용에 따라 취미/오락, 교과학습, 인성체험, 스포츠, 생태체험, 음악, 외국어, 독서, 봉사활동, 무

용, 자격증, 기타 등 12개로 분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토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 기타로 분류하는 것을 그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 재분류 하여 프로그램의 종류를 11개로 하였으며, 교육지원청의 2011학년도 하반기와 2012학년도 상반기 직속기관 및 지자체 토요스쿨 프로그램 목록에서는 토요 프로그램의 종류를 직시하지 않아 <표 2>와 같이 프로그램 종류를 구분하였다.

<표 2> 토요 프로그램 종류의 분류

종 류	프로그램명
교과학습	경제지식, 학습지도, 오감발달놀이, 로봇교실, NIE(교과서속사회, 논술), 창의체험, 창의탐구, 공부방, 놀이교실, 발명교실, 자기주도학습, 과학교실, 교과학습(생태기후, 과학실험, 현장체험, 역사교실, 교과지도), 교구활동, 글짓기, 발표회, 기초교육, 기초학습, 주판셈, 백일장, 한자교실, 논술, 마술, 별과우주, 별자리여행, 보충학습, 수학교실, 미술교실, 국사, 멘토링, NIE, 환경논술,
독서	책을알고 나를알자, 북클럽(영어독서회), 독서논술, 독서토론회, 그림책읽어주기, 가족독서, 초청강연, 도서관기자단, 도서교환전, 감상화, 골든벨, 독서치료, 독서지도, 동화교실, 생각키우기, 문학캠프, 글쓰기, 속독, 북아트, 영어도서관, 백일장, 생각키우기, 고전읽기, 독서지도과정,
무용	마당춤(용궁으로간 토끼, 별주부전), 벨리댄스, YMCA무용단, 기초댄스, 댄스스포츠, 무용단, 무용치료, 발레, 방송댄스, 시립무용단[평강과 온달], 유행댄스, 제즈댄스
봉사활동	V-day(환경정화, 나무심기), AOV청소년 봉사활동(댄스, 문화), Clean 수영(환경정화활동), 사진봉사, 청소년봉사단(사나래, 청록짱, 늘품), 가족봉사단, 꿈나무 자원봉사학교, 노인무료봉사, 놀토&happy+, 농촌일손돕기, 도서관봉사, 동래환경사랑 지킴이, 모두가족품앗이, 무료급식봉사, 병원봉사, 디빙스 봉사단, 북구클린 봉사단, 신토불이, 아동약물남용예방홍보요원양성캠프, 영도가꾸기, 목욕봉사, 손자되어드리기, 마을가꾸기, 장산가꾸기, 장애인 봉사, 즐거운도움, 지하철봉사, 해수욕장 가꾸기, 해피바이러스봉사단, 황령산토요봉사회, 힘내세요! 군인아저씨!
생태체험	체험교실(문화체험, 생태탐사, 순환여행, 생태체험, 갈대체험, 갯벌체험, 경운기 드라이브, 고래박물관, 곤충관찰, 목장체험, 농촌체험, 자연체험, 낙동강체험, 모내기체험, 도심속자연, 안동화회마을, 물고기사육, 숲체험, 둘레길, 전통놀이, 이기대해안길, 조간대생태, 하구, 허브와 야생화, 환경체험), 캠프(창작, 놀자, 나도어부가되어볼까, 아이러브밀크, 테마로떠나는여행), 유니세프(환경아 놀자), 탐방(가덕도, 정자, 온천문화, 숲생태, 해운대)
스포츠	스키, 탁구, 국술, 배드민턴, 줄넘기, 축구, 태극권, 탁구, 건기, 수영, 클라이밍, 농구, 포켓볼, 피구, 보드게임, 스쿼시, 카파댄스, 해양스포츠체험, 야구, 요가, 볼링, 벨리댄스, 등산,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골프, 체조, 스피드스택스, 미션파서블, 서바이벌게임, 수중올림픽, 오리엔티어링, 생활체육, 칼라클레이, 국궁, 스케이트, 검도, 래프팅, 스포츠스태킹
외국어	영어(스토리텔링, 체험교실, 템플스테이, 노래로부르는 동화, 회화, 영어노래, 엠플, 체험축제, fun&fun, Art&Friend, 영어열차, 토론동아리, ERSPhonicsClass, ICanRead, Art&Craft, Song&Dance, ClayEng., e-Test, ITQ, 진도별학습, Eng.Adventure, ENIE,

부산광역시의 토요 프로그램 운영실태의 탐색

	뮤지컬, 시네마월드, IPTV, DVD, CCM, 영어요가, 외국어(일어, 중국어, 한자), 일어 교실
음악	오케스트라, 뮤직스쿨, 가야금, 기타, 플룻, 바이올린, 노래, 난타, 동요, 드럼, 피아노, 리코더, 뮤지컬, 우쿨레라, 벨플레이트, 사물놀이, 합창단, 성악, 실용음악, 오카리나, 음악줄넘기, 재즈피아노, 첼로, 클라리넷, 키보드, 토요해피콘서트(드보르작, 현악앙상블, 비발디음악회, 도니체티음악회, 박은아의음악여행, 비제음악회, 사랑의 인사, 신나는 음악여행, 영화속의 클래식, 오전11시, 윈드앙상블, 작곡가수자앙상블, 클래식아 놀자, 클래식은 내친구, 타악앙상블), 통기타, 성악교실,
인성체험	예절교실, 발명교실, 개인상담, 진로탐색, 인라인, 다도교실, 리더쉽워크숍, 법률상담, 명상, 도미노, 나눔장터, 심리미술, 체험(농촌, 문화, 미디어, 교통안전, 구급, 리더캠프, 박물관, 경제탐험대, 도서관, 하늘사랑캠프, 생활안전, 요리교실, 우주캠프, 원자력안전, 중국역사문화탐방, 장애체험교육, 텃밭체험, 부산역사알기), 학습(자기주도, EQ증진, 원작동화, 부모교육, 인성교육, 시사토론, 안전교육, 인권교육, 영상토론, 인터넷중독교육, 금연학교, 학교폭력예방, 화재안전), 체험(바다, 선택여왕흔적을찾아서, 역사탐방, 김수로의 흔적을 찾아서),
자격증	컴퓨터(기본과정, 워드자격), 한자(한자급수대비), 한국어능력시험
취미/교양	UCC, POP아트, 만들기(한지공예, 압화공예, 손수건리폼, 선물포장, 북아트, 북카페, 나무공충만들기, 꽃잎책갈피만들기, 골판지공예, 흙피리, 화분, 흙고, 호떡, 요리, 핸드페인팅, 펠트공예, 텃밭, 탁본, 도예, 크리스마스케이크, 쿠키클레이, 초콜릿DIY목공스쿨, DIY 액세서리, 천연비누, 천연화장품, 주먹밥, 지점토공예, 나무공예, 애니메이션 제작, 목공예, 점핑클레이, 전통탈, 도자기, 전통빵, 음식, 와이어공예, 에코백, 양초공예, 리본공예, 소품만들기, 별종이접기, 샌드위치도시락, 비즈공예, 뽀뽀로만들기, 에어로켓 만들기, 사탕, 종이접기, 토피어리, 나무액자, 골판지공예, 타일공예, 두부과자만들기, 소원등만들기), 가구페인팅, 영화상영, 로봇수업, 진로, 홀노인과일촌맺기, 도미노, 현장학습, 문화체험, 원예교실, 수화교실, 동요교실, 해양수산교실, 마술교실, 합창교실, 테마여행, 플룻교실, 풍선아트, 풍물, 미술교실, 관화체험, 토크콘서트, 발명교실, 생활과학교실, 역사체험, 댄스(방승, 벨리, 발레), 테라코타, 클레이아트, 컴퓨터교실, 직업체험, 백일장, 천연염색, 종이접기, 글쓰기, 바둑교실, 등산, 체험광장(평생학습, 주말농장), 제과제빵, 민속놀이체험, 장난감도서관, 말하기교실, 박물관체험, 인터넷활용교육, 인라인스케이팅, 오케스트라, 요가, 독서, 오카리나, 예방접종, 연극교실, 포켓볼교실, 스토리텔링, 수화교실, 수상안전체험, 수련활동인증프로그램(선명상과 마음공부, 혜진원가자, 가족문화탐방특공대), 심리교실, 서예, 사물놀이, 독서토론, 발굴체험, 동화구연, 다문화체험, 디카교실, 기타교실, 보드게임, 글씨교정, 경제교실, 가족사랑걷기대회, 인형극(호랑이와 꽃감, 팔죽할멈과 호랑이), 인형극공연, 바둑, 예쁜글씨, 동시, 포크아트

3. 조사절차와 처리

부산시내에서 실시되는 토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고 있는 토요배움터 토요 스쿨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토요스쿨 프로그램 목록 1,853개를 2012년 3월 10일부터 3월 20일까지 조사 및 정리하고, 3월 20일부터 5일간 알림마당에 있는 교육지원청의 2011학년도 하반기와 2012학년도 상반기 직속기관 및 지자체 토요스쿨 프로그램 목록을 조사하였다. 이 두 개의 두 개의 싸

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토요 프로그램 목록은 상당부분 중복하여 탑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분류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물론, 대학원 교육학 박사과정에 있는 대학원생 2명으로 하여금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2,823개를 확정하였다.

그리고 탑재되어 있는 정보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또는 명확하지 않은 토요 프로그램은 관련 기관에 전화·면담조사를 통하여 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하였다. 확정된 토요 프로그램의 자료는

SPSS 12.0을 이용하여 단순 빈도를 구하는 것으로 하였다.

#### IV. 부산시의 토요일 프로그램 운영 분석 결과

##### 1. 토요일 프로그램 운영 현황

가. 부산시의 토요일 프로그램의 종류

주5일 수업제 토요일배움터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을 내용에 따라 크게 취미/오락, 교과학습, 인성체험, 스포츠, 생태체험, 음악, 외국어, 독서, 봉사활동, 무용, 자격증 등 11개로 분류된다. 이와 같은 토요일 프로그램은 운영주체가 한 기관일수도 있고, 여러 기관일 수도 있으며, 일부 프로그램은 동일한 기간에 실시되는 것도 있다. 운영주체나 운영시간의 문제를 차제하고 지역사회가 실시하는 토요일 프로그램을 종류별로 분류하면, 취미/교양 관련 프로그램이 1059개(37.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이 307개(10.9%)로 나타났다. 교과학습은 295개(10.4%), 인성체험은 275개(9.7%), 생태체험 240개(8.5%), 음악 187개(6.6%), 외국어 147개(5.2%) 등이었다.

<표 3> 부산시 토요일 프로그램의 종류

구분	합계	취미/교양	스포츠	교과학습	인성체험
빈도	2823	1059	307	295	275
백분율	100	37.5	10.9	10.4	9.7
구분	생태체험	음악	외국어	독서	봉사활동
빈도	240	187	147	143	126
백분율	8.5	6.6	5.2	5.1	4.5

나. 연도별 토요일 프로그램 운영현황

부산시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토요일프로그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토요일 휴무제를 실시하기 시작한 2006년에는 36개(1.3%)였으나, 2007년에는 277개(9.8%), 2008년에는 277개(9.8%), 2009년에는 167개(5.9%), 2010년에는 495개(17.5%)였다. 그러

나 2011년에는 495개(17.5%)였으나, 토요일휴무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2012년에는 1429개(50.9%)로 확대되었다.

<표 4> 부산시 토요일 프로그램의 연도별 현황

구분	합계	2012	2011	2010
빈도	2823	1429	495	142
백분율	100	50.6	17.5	5.0
구분	2009	2008	2007	2006
빈도	167	277	277	36
백분율	5.9	9.8	9.8	1.3

다. 지역별 토요일 프로그램 운영 현황

지역별 토요일프로그램 현황을 보면, 해운대가 331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진구 328개, 동래구 295개, 금정구 246개, 북구 240개의 순이었다. 그 외의 자치구에서는 100개 이상 200개 미만의 토요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영도구(88개), 강서구(85개), 기장군(84개), 사하구(70개) 등은 100개 이하의 토요일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부산시 지역별 토요일 프로그램의 현황

구분	빈도	퍼센트
해운대구	331	11.7
진구	328	11.6
동래구	295	10.4
금정구	246	8.7
북구	240	8.5
서구	193	6.8
사상구	182	6.4
남구	132	4.7
동구	130	4.6
중구	127	4.5
수영구	124	4.4
영도구	88	3.1
강서구	85	3.0
기장군	84	3.0
사하구	70	2.5
연제구	168	6.0

라. 토요일 프로그램 운영주체

2006년부터 2012년 4월 현재까지 6년간 부산시



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토요 프로그램을 운영주체별로 구분하면 <표 6>와 같다. 부산시내의 토요 프로그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이 운영하는 토요 프로그램과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토요 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국가·지방자치단체로는 교육지원청과 산하기관이 385개,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이 1,571개, 국가기관은 62개의 토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거나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 중에 민간단체가 운영하였거나 또는 운영중인 토요 프로그램은 805개였다.

교육지원청은 관내 도서관 등 8개의 산하기관이 토요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였거나 또는 운영중이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부산시를 비롯하여 종합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 포함) 등 31개 산하기관이, 국기기관은 수산과학관 등 5개 기관이 토요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였거나 또는 운영중에 있다.

민간단체가 운영하였거나 또는 운영중인 토요 프로그램을 운영주체별로 세분하면, 종교단체, 아동·청소년 관련 단체, 스포츠·댄스 관련 단체, 교육관련 단체, 문화·취미관련 단체, 연극·음악 관련 단체, 여성·교양 관련 단체, 봉사·환경 관련 단체, 기타로 구분되어지며, 이 들 중 종교단체가 370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단체가 178개였으며, 봉사·환경단체 58개, 스포츠·댄스 관련 단체 51개 등의 순이었다. 이 들 중 아동·청소년 관련 민간단체와 스포츠·댄스 관련 민간단체는 각각 13개 단체가 토요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였으며, 교육관련 민간단체는 6개 단체, 문화·취미 민간단체는 11개 단체, 음악·연극·영화 민간단체는 4개 단체, 여성·교양·가족 민간단체는 8개 단체, 봉사·환경 민간단체는 7개 단체, 기타 단체는 8개 단체가 참여하였다.

## 2. 토요 프로그램 분석

### 가.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학교의 교육과정은 그 적합성, 효과성을 매년

<표 6> 운영주체별 토요 프로그램의 현황

구분		수	비율
국가·지방자치단체	교육청	385	13.6
	지자체	1,571	55.6
	국가기관	62	2.1
민간단체	종교단체	370	13.1
	아동·청소년	178	6.4
	스포츠·댄스	51	1.8
	교육	36	1.2
	문화·취미	37	1.3
	연극·음악	5	0.1
	여성·교양	40	1.4
	봉사·환경	58	2.0
	기타	30	1.0
합계		2,823	100.0

자체 평가하여 문제점과 개선점을 추출하고 학생들의 교육목표 달성도를 조사하여 다음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평가는 연 2회(학기말, 학년말) 실시하여 수정·보완하고 다음 학년도의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A).

그러나 부산에서 실시되고 있는 토요 프로그램은 학교나 학생의 토요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에 맞추어 실시되기 보다는 토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 자체 개발한 토요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형태의 토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별·학교별·학년별 또는 교육과정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사회가 토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극히 곤란하고, 학교차원에서 특정한 내용의 토요프로그램 운영을 요구하는 형태가 되어야 하나, 현재로서는 학교단위에서 요구하여 운영되는 토요프로그램은 거의 없다. 학교의 교육과정이 자체 평가를 통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교육목표 달성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면 학교 교육과정과 지역사회의 토요 프로그램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는 토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사회에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회는 학교 교육과정에 맞는 토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해당학교에 홍보하는 협력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그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는 학교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학생들의 흥미와 교육적 효과를 고려하여 토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사회의 토요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토요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그 문제점과 개선안을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 나. 맞춤형 토요프로그램의 한계

일반적으로 학교별, 또는 학년별 학생들의 흥미와 지적 수준에 차이가 있고, 교육과정 진행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 이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의 토요프로그램 운영 매뉴얼에는 학교가 운영하는 토요 프로그램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토요일 프로그램 기초 조사를 실시하여(신입생의 경우 예비소집일에 기초 조사를 실시) 학생들이 희망하는 프로그램 내용 등을 조사하여야 하며, 기초 조사의 내용분석을 바탕으로 토요일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기획하도록 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A).

그러나 지역사회가 실시하고 있는 토요 프로그램은 학교나 학생의 흥미와 요구와는 상관없이 기관의 조직과 시설을 이용하여 실현 가능한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지역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토요프로그램은 사전에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체험학습의 주제를 선정하거나 또는 학생들의 흥미나 관심사항에 대해 조사하지 않은 채 운영주체가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의 종류나 내용 및 방법을 정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참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지역사회 토요 프로그램이 기관 내의 시설을 활용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찾아오도록 하는 수동적인 토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어린 학생들로 하여금 프로그램 내용만을 보고 타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토

요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물론,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지원청의 산하 단체가 각 지역에 분포하고 있지만, 유사 기관이라 하더라도 기관마다 동일한 토요 프로그램이 아니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실시하는 토요 프로그램이 학교 교육과정의 실현을 위함이라면, 토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지역사회는 관내 일선학교의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체험학습의 주제를 선정하여야 하며, 보유하고 있는 시설과 교육내용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성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찾아가는 토요 프로그램의 운영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부산소방본부는 찾아가는 토요 프로그램을 일부 운영하고 있음). 또한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흥미와 교육적 효과를 고려하여 체험학습의 내용과 방법 등을 지역사회에 공지하고 지역사회가 학생들의 흥미나 요구에 맞는 토요 프로그램의 개발과 더불어 학생 중심의 토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학교 시설 등의 제공 등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다. 토요 프로그램의 운영 시스템

토요 프로그램은 교육과학기술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및 학교가 협력하는 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토요 프로그램 운영매뉴얼을 위시하여 토요 프로그램의 정책개발 및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며, 여타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시설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교과내용과 관련한 다양한 체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토요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라 할 수 있다. 또한 민간단체들로 하여금 토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토록 지도는 물론, 예산지원 등의 역할도 수행한다. 민간단체는 기관의 특성에 맞는 토요 프로그램을 개발함은 물론, 지역사회에 있는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학교는 자체적으로 토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 등에서 실시하는 체험학습의 내용과 방법을 사전에 조사하여 학생들의 흥미나 요구에 맞는 토요 프로그램을 안내한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 및 주5일 수업제 토요배움터에서 중앙정부 및 지역사회가 실시하는 토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와 지방교육지원청 및 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토요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에 따라 각각의 임무와 역할이 설정되는 등 업무 연계성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와의 토요 프로그램에 대한 유기적인 관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과의 토요 프로그램에 대한 협조나 협력체제가 유기적이지 못하다. 그 예로 어딘 지역에서는 최대 330개의 토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어떤 지역에서는 겨우 70개 정도의 토요 프로그램만이 운영되고 있다. 게다가 민간단체의 경우도 자가 시설을 활용한 토요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 학생들이 토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해도 집과의 거리나 또는 가보지 않은 지역에 가야 하는 등의 문제로 선 듯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요 프로그램 운영 시스템을 조직하고 학생을 비롯한 학부모나 학교의 요구에 따라서 지역 내에서도 다양한 토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 라. 토요 프로그램운영자의 전문성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요 프로그램 운영 시스템을 조직하고 학생을 비롯한 학부모나 학교의 요구에 따라서 지역 내에서도 다양한 토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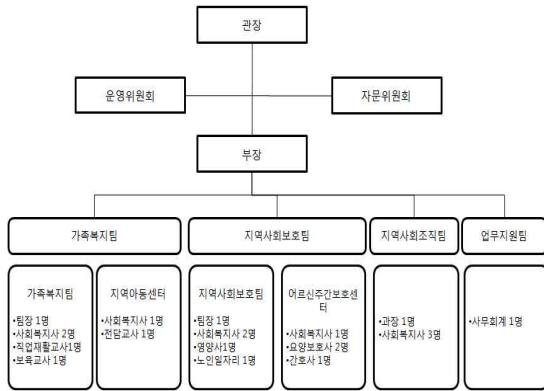
지역사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토요 프로그램은 학생의 교육이 학교에서 지역사회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학생의 교육은 일정한 시설, 설비, 교재,

교구를 갖추고 전문성과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초·중·고등학교 제21조에서 교원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고, 동법 별표에서는 학교별로 교사의 자격기준을 세분화하고 있다. 따라서 토요 프로그램 운영기관은 학생교육과 관련한 전문성을 가진 자로 하여금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산 관내에서 2006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교육지원청 산하단체 중 토요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운영한 기관은 도서관(280개)이며,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중 요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운영한 기관은 종합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 포함)(343개)이다. 이들 두 기관만을 가지고 볼 때, 두 기관 모두 학생 교육을 고유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관으로서 교사자격증을 소지하였거나 학생교육과 관련한 전문성을 가진 자를 굳이 채용해야 하는 기관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80~343개의 토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은 교육의 전문성을 가진 자를 채용하거나 또는 활용해야 한다.

도서관은 도서관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토요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사서와 열람 및 학부모지원센터라는 조직을 가지고 있고, 이들 조직은 토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 사서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도서관 문화강좌 운영, 독서회 운영, 평생교육 프로그램 기획·개발 및 운영, 학보무 연수 등의 업무를 고유업무로 하고 있다.

반면에, 종합사회복지관은 고유 업무에도 불구하고 많은 토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나, 토요 프로그램 운영 전과 비교하여 학생교육과 관련한 전문성을 가진 새로운 인력의 충원이거나, 토요 프로그램을 전담할 조직이 없다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토요 프로그램 전담을 위한 임시직 직원을 고용하거나 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기관 내에 토요 프로그램을 기획·진행·교육시킬 수 있는 전문가의 확보 등 토요 프로그램 운영자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그림 1] 000 사회복지관 조직도

## V. 토요 프로그램 운영 방안 모색

### 1. 수준별 맞춤형 토요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토요 프로그램은 학생이 여유를 가지고 각자의 적성과 소질을 살리면서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도록 도움을 주는 지역사회의 활동이다. 또한 토요 프로그램은 학습의 장을 학교에서 가정과 지역사회로 확대하고 학교-가정-지역사회 연계의 교육공동체를 구축하여, 학교교육에서 실시하기 어려운 문화, 예술, 스포츠 활동을 비롯한 사회·자연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의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바른 품성과 인성을 갖도록 도와주는 지역사회의 배려이다.

그러나 주5일 수업제의 전면 실시와 더불어 추진된 토요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참여율이 10%에 머무는 등 토요 프로그램의 지역사회 배려가 교육을 받고 배워야 할 당사자인 학생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다. 이것은 토요 프로그램 자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학생의 문제인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학생들로부터 외면당하지 않는 토요 프로그램의 운영이 요구된다.

학생들의 학습능력이나 지적 수준은 지역별·학교별로 차이를 보이고, 흥미나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도심과 외곽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지원청의 산하기관은 지역적으로 편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문화·예술분야도 지역적 편중현상이 심한 상황에서 각 기관의 시설이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찾아오게 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있다. 어린 학생들은 마음에 드는 토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정으로부터 먼 거리에 있는 토요 프로그램의 참여가 곤란한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찾아가는 토요 프로그램 서비스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늘어난 휴일에 대해서는 ‘누구도’ 방치되지 않는 휴일이 되도록 배려함은 물론, ‘누구나’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휴일을 보낼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토요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이 있는 토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학생들의 토요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를 수집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 토요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여 관련 산하단체로 하여금 학생의 요구에 맞는 토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지도 및 지원하는 체제의 구축이 요구되고, 필요하다면 민간단체로 하여금 학생요구에 맞는 토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알선하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 2. 토요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점수제 도입

토요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자발적인 학습보다는 타율적인 학습을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교사, 학부모의 권유나 강요에 의하지 않고 학생 스스로 토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참여율은 낮을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의 사례를 보면, 미션학교

에서 학생들의 신앙심을 심어주기 위한 한 방법으로 매주 일요일 오전에 교회가 가서 예배를 보게 하고 그 증거로서 목사의 참석확인서를 받아 오게 하였다. 시행 초기에는 참석확인서를 미션 과목 성적과 연계성을 두지 않으니 교회에 가는 학생의 수가 적었는데, 그 이후 참석확인서를 성적과 연계시키자마자 거의 모든 학생들이 일요일의 예배에 참석하였다.

현재 시행중인 토요 프로그램을 보면 상당부분 유사한 내용을 여러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형태이다. 이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토요 프로그램은 거의 참여한 것과 같은 결과로 되어 토요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열의가 낮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경우 학생들은 갖은 핑계를 가지고 토요 프로그램 참여를 외면할 것이다.

위에서 지적했던 사례와 같이 토요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가 이상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및 나홀로 학생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토요 프로그램 참여 점수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점수제가 사실상 곤란한 초등학생은 차제하더라도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얼마나 많은 토요 프로그램에 참여했는지 또는 얼마나 꾸준히 토요 프로그램에 참여했는지를 점수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3.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 협동토요프로그램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현재는 지역사회가 토요프로그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면 수요자인 학생이 참여할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형태이다.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나 안내가 구체적이고 상세하지 못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선택을 하고 실제 참여한 후에는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내용이거나 형태로 진행됨으로써 흥미를 갖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것은 학습자의 능력에 따른 토요 프로그램 선택권의 완전한 확보라고 하기에는 미흡하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백화점식 토요프로그램의 나열에 의한 수요자 선택권 부여의 방식에서 수요자 요구형 토요 프로그램의 개발로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 이 때 수요자 요구형이란 학교 교육과정이나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따라 담당 교사가 담당하는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토요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방법 등을 요구할 수도 있고, 토요 프로그램에 참여할 학생 또는 동아리 차원에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토요 프로그램의 운영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교사나 학생이 요구하는 토요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새로운 토요 프로그램일 수 있다.

토요프로그램 지원센터는 교사나 학생의 토요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여 지역사회가 운영하는 토요 프로그램과 연결시키거나 또는 새로운 토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새로운 토요 프로그램은 예산과 인력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내용의 전문성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토요 프로그램은 지방자치단체나 그 산하기관의 업무영역과 관계되기도 하고 교육지원청과 그 산하기관의 업무영역과도 관계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교육지원청 산하의 토요프로그램 지원센터는 한계성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협동토요프로그램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교사 및 학생이 요구하는 토요 프로그램이 어떤 기관의 업무영역인지를 판단하여 해당기관에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고 토요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토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학교외 여가활동을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관장하는 프랑스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토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대부분 무료로 하거나 또는 저렴하게 하지만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수요자 맞춤형 토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의 프로그램은 매년 평가되며, 프

로그램 운영을 위한 정규 전문가들을 확보하여야 한다.

## VI. 결론

본 연구는 전면적인 주5일 수업의 시행과 더불어 지자체와 교육청 및 민간단체의 토요일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모색을 한 것이다. 주5일 수업이 주요 선진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시행된 점을 고려한다면, 학교와 학교 외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 가지 고려가 필요하다. 학교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단위학교에서 기존의 수업시수나 교육내용과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조치를 하고 있다. 토요일 프로그램의 경우는 학교 외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이 프로그램의 개설과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부산의 경우에도 지자체나 교육청 및 민간단체의 주도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러나 토요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체가 다양하게 전개된다면, 이들 주체별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의 중복성을 배제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한다. 프로그램의 운영 기관간의 특화, 교육기부나 재능기부자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인력풀 확보,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의 확보, 권역별 지역사회의 토요일 프로그램 자원의 확보와 자원의 연계 등의 다양한 체제의 마련이 요구되는 것이다.

부산의 경우 주5일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주5일 수업제 시행 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토요일 스쿨 인력풀 및 안전망의 구축, 체계적인 연수와 홍보의 실시, 토요일 배움터 홈페이지 활성화 등의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토요일배움터에서는 회원가입을 하고, 토요일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참

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토요일프로그램의 활성화와 더불어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것이다. 그러나 토요일 프로그램의 구체적 운영에서는 지역간의 격차가 발생하고, 인기있는 프로그램이 안전보호와 관련된 사항이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은 해결하여야 할 과제가 되는 것이기도 하다. 토요일프로그램의 요구를 어떠한 방법으로 받아들이고, 이들 요구 사항을 어떻게 처리하여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보급할 것인가에 대한 체제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별로 격차가 발생함으로써, 정규 교육뿐만 아니라, 토요일 프로그램까지 지역별 격차가 그대로 이어진다는 교육의 기회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주5일 수업으로 인한 토요일프로그램의 운영이 또 다른 교육에서의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아야 한다.

## 참고 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11. 5. 18).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 선순환 방안' 확정·발표.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11. 6. 14). 2012학년도부터 '주5일수업제' 전면 자율 도입.  
 교육과학기술부(2012). 주5일 수업제 대비 토요일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방안.  
 교육과학기술부(2012A). 주5일 수업제 운영 매뉴얼(초·중·고등학교용)  
 구자역 외(2003). '주5일수업제 이행 과정 국제 비교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박성숙(2011). 주5일수업제 전면 자율 도입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 ORM 2011-28, 132~135.  
 박성쾌 · 차철표 · 공라경 · 권혁준(2010). 주민참여를 통한 영도 동삼동(하리)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국토해양부·영남씨그랜드대학사업단.  
 박순경 외(2005). 주5일수업제 전면시행 대비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세미나 자료집),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 ORM 2005-43.  
 박순경 · 허경철 · 이미숙 외(2005). 주5일수업제 전면 시행 대비 교육과정 편성·운영방안 연

- 구,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과제 2005-지정-50.
- 박창언 외(2009). '주5일수업제 도입에 따른 교육과정 조정 방안'에 관한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박창언·민용성·오은주(2010).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대비한 초등학교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의 국제비교,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0(1), 127~151.
- 석인숙(2011). 2012학년도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예시안에 대한 의견, 지정토론, 「주5일수업제」 전면 자율 도입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제12회 KICE 교육과정 정책포럼. 연구자료 ORM 2011-28. 114~117.
- 유한구 외(1999). '주5일제 수업에 대비한 교육과정 체제·구조 개선 연구', 1999년도 교육부 정책연구과제.
- 이윤미 외(2004). '주5일수업제 모든 학교 월1회 실시 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이윤미((2012), 주5일수업제 시행 대비 교육청-지자체 연계강화를 위한 담당장학사 워크숍
- 진옥년(2011). 주5일수업제 전면 자율 도입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 ORM 2011-28. 124~126.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0). 교육 형평성 제고를 위한 기초학력 보장 체제 구축의 방향과 과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 ORM 2010-4-6. KICE Position Paper, 2(6).
- 홍광식·최영자·이연화·정정임·장남덕(2002), 학교 주5일제에 관한 학생과 교사의 의식 분석, 초등교육연구 15(1), 353~379.
- 
- 논문접수일 : 2010년 09월 14일
  - 심사완료일 : 1차 - 2010년 10월 04일
  - 게재확정일 : 2011년 10월 08일